

2020년 4월 2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원유시장 붕괴와 IBM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 WTI 6월물 40% 이상 급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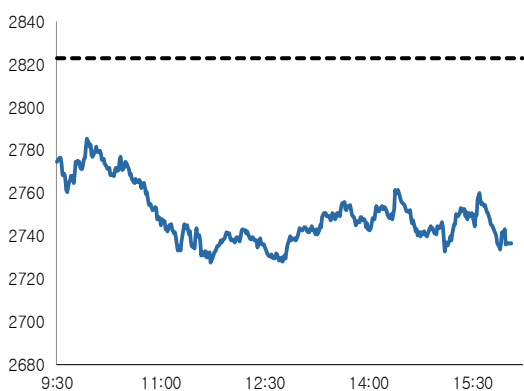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원유시장, IBM 실적

미 증시는 원유시장이 붕괴된 가운데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특히 전일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IBM(-3.03%)과 그에 따른 여타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 더불어 원유시장 붕괴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며 금융주와 중소형 종목들도 부진. 한편,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의 관련 산업 지원 기금 조성 언급에 힘입어 큰 폭의 하락은 모면(다우 -2.67%, 나스닥 -3.48%, S&P500 -3.07%, 러셀 2000 -2.33%)

전일 5월물이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원유시장이 붕괴.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생산된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다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의 매물 출회를 부추김. 사실 선물 만기에 가까워지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정상적인 일이 가끔 발생. 그런데 이러한 원유 저장 능력에 대한 우려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유시장 붕괴를 더욱 부추기고 있음. 앞으로도 이러한 저장 능력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수요가 부족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결국 원유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형적인 공급과 수요의 문제 보다는 만기 결제에 따른 현물 인수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변동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이는 5월물에 이어 6월물에도 해당 될 수 있어 오늘 국제유가 급락 요인이라 볼 수 있음.

오늘 미 증시에 미친 영향은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도 있었지만, IBM(-3.03%)의 실적 발표가 컸다고 볼 수 있음. IBM은 1분기 매출액이 소프트웨어 판매 위축으로 예상을 하회한 전년 대비 3.4% 둔화 되었다고 발표. 특히 클라우드 관련 부문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3월 이후 리테일 업체를 중심으로 계약 연기 및 중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이유로 가이던스 발표를 철회. 문제는 이러한 IBM의 매출 둔화는 분기 마지막 2주 동안 발생해 코로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2분기 또한 크게 위축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 결과 IBM은 물론 세일즈포스(-7.50%)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급락 했으며, 그동안 견고 했던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1.00	1,879.38	홍콩	홍콩	-1.00	23,793.55	-2.20
KOSDAQ	-1.42	628.77	영국	영국	-1.42	5,641.03	-2.96
DOW	-2.67	23,018.88	독일	독일	-2.67	10,249.85	-3.99
NASDAQ	-3.48	8,263.23	프랑스	프랑스	-3.48	4,357.46	-3.77
S&P 500	-3.07	2,736.56	스페인	스페인	-3.07	6,634.90	-2.88
상하이종합	-0.90	2,827.01	그리스	그리스	-0.90	591.02	-2.59
일본	-1.97	19,280.78	이탈리아	이탈리아	-1.97	16,450.85	-3.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73%

IBM(-3.03%)은 소프트웨어 매출 부진으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 했다. 클라우드 관련한 매출이 전분기 대비 부진했던 점을 감안 아마존(-2.74%), MS(-4.14%) 등도 하락했다. 더 나아가 세일즈 포스(-7.50%), 서비스나우(-4.53%), 워크데이(-7.12%)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급락했다. 이 결과 최근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마이크론(-4.59%), 인텔(-4.77%), NVIDIA(-6.11%), 램리서치(-8.66%) 등 반도체 업종도 약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3% 하락했다.

원유시장이 붕괴되자 코노코필립스(-3.99%), EOG리소스(-1.63%), 옥시덴탈(-1.99%) 등 셰일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으나, 트럼프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데 힘입어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개별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자 JP모건(-2.90%), BOA(-3.82%), 웰스파고(-3.03%) 등 금융주는 부진했다.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0.84%)는 시간 외로 보험권에서 등락 중이다.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820만명) 보다 큰 1,577만명으로 증가했으나, 많은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 고용불안 등으로 급여가 감소해 향후 해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35%	대형 가치주 ETF(IVE)	-2.67%
에너지섹터 ETF(OIH)	-1.95%	중형 가치주 ETF(IWS)	-2.30%
소매업체 ETF(XRT)	-2.65%	소형 가치주 ETF(IWN)	-1.87%
금융섹터 ETF(XLF)	-3.23%	대형 성장주 ETF(VUG)	-3.38%
기술섹터 ETF(XLK)	-4.19%	중형 성장주 ETF(IWP)	-3.6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61%	소형 성장주 ETF(IWO)	-2.71%
인터넷업체 ETF(FDN)	-3.44%	배당주 ETF(DVY)	-2.36%
리츠업체 ETF(XLRE)	-1.47%	신흥국 고배당 ETF(DEM)	-2.64%
주택건설업체 ETF(XHB)	-2.2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90%
바이오섹터 ETF(IBB)	-3.03%	미국 국채 ETF(IEF)	+0.28%
헬스케어 ETF(XLV)	-3.04%	하이일드 ETF(JNK)	-2.12%
곡물 ETF(DBA)	-0.96%	물가연동채 ETF(TIP)	+0.51%
반도체 ETF(SMH)	-4.48%	Long/short ETF(BTAL)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47.38	-1.68%	-3.88%	+36.65%
소재	300.64	-2.48%	-6.04%	+24.40%
산업재	506.51	-2.42%	-4.20%	+22.92%
경기소비재	888.09	-2.66%	-1.59%	+24.41%
필수소비재	595.34	-2.27%	-3.62%	+18.84%
헬스케어	1,128.23	-3.14%	-0.28%	+29.53%
금융	353.65	-3.20%	-5.85%	+20.47%
IT	1,479.68	-4.10%	-5.44%	+19.39%
커뮤니케이션	157.99	-3.18%	-3.32%	+14.68%
유틸리티	291.12	-1.61%	-5.51%	+27.82%
부동산	203.08	-1.61%	-6.52%	+28.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매물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2.92% MSCI 신흥 지수 ETF 는 2.77%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2,131.2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원유시장 붕괴와 IBM 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하락했다. 관련 이슈는 전일 한국 증시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던 측면이 있으나, 투자심리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특히 WTI 6 월물이 40% 넘게 급락하고 브렌트유도 25% 넘게 하락하며 20 달러를 하회하는 등 원유시장 붕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3% 급락하는 등 기술주가 미 증시 하락을 주도해 한국 증시 조정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급락은 모면 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관련 기업들이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주식시장 위축을 불러왔으나, 오늘은 트럼프가 에너지 산업을 위한 긴급 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텍사스 지역의 에너지 산업의 규제 기관인 텍사스 철도 위원회가 감산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 기인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엑손모빌과 파이프라인 업체들이 감산에 찬성하지 않아 회의가 5 월 5 일로 연기 되었으나 미국내에서 감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향후 원유시장 안정 기대를 높인다.

이와 함께 미 상원이 4,840 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병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체결하고, 이탈리아는 5 월 4 일부터 경제 섯다운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조정이 예상되나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없다면 그 조정폭이 확대될 개연성은 높지 않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 지표 둔화

미국 3 월 기존 주택판매 건수는 전월(576 만건)과 예상(533.5 만건)을 하회한 527 만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8.5% 감소 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0.8% 증가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여파로 판매가 감소했다. 주택 재고는 전월(3.1 개월)을 상회한 3.4 개월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원유시장 붕괴

국제유가는 트럼프가 전략 비축유 매입과 사우디로부터의 수입 중단 등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한 때 70% 넘게 급락했다. 이는 6 월 만기에도 저장 능력에 대한 부담이 여전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텍사스 철도 위원회가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5 월 5 일 논의를 지속하기로 발표하는 등 미국의 감산 기대가 높아지자 장 후반 낙폭을 축소했으며, 시간외로 낙폭이 좀더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만기일을 맞은 5 월물은 일부 청산 물량이 유입되며 결국 9.06 달러로 마감했다.

달러화는 원유시장 붕괴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장 초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달러화의 강세폭이 확대되자 약세로 전환 했다. 유로화는 독일 4 월 ZEW 경기 전망 지수가 개선되자 달러 대비 약세는 제한 되었다. 노르웨이 크로네, 러시아 루블 등 원유 시장과 관련된 상품 환율은 달러 대비 2% 내외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원유시장이 붕괴되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장기물의 하락폭이 컸다. 다만, 미국 상원이 4,84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에 합의하고, 이탈리아가 5 월 4 일부터 경제 섯다운을 완화 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자 2 년물은 상승 전환 했다.

금은 원유시장 붕괴로 상품시장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돼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국제유가 급락으로 부진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57	-43.37	-57.77	Dollar Index	100.184	+0.23	+1.31
브렌트유	19.33	-24.40	-34.70	EUR/USD	1.086	-0.02	-1.09
금	1,687.80	-1.37	-4.58	USD/JPY	107.77	+0.14	+0.51
은	14.991	-4.82	-8.26	GBP/USD	1.2302	-1.13	-2.54
알루미늄	1,490.50	-0.83	-0.86	USD/CHF	0.9694	+0.14	+0.98
전기동	5,030.00	-2.96	-2.58	AUD/USD	0.6292	-0.69	-2.33
아연	1,911.00	-1.85	-0.60	USD/CAD	1.4196	+0.33	+2.25
옥수수	317.25	-1.55	-4.51	USD/BRL	5.3162	+1.56	+2.25
밀	546.25	-0.23	-0.64	USD/CNH	7.1032	+0.17	+0.80
대두	840.75	+0.54	-1.72	USD/KRW	1229.70	+0.75	+0.97
커피	111.50	-3.25	-5.79	USD/KRW NDF1M	1231.24	+0.99	+1.64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563	-4.25	-18.92	스페인	0.999	+11.30	+16.20
한국	1.455	+1.30	-2.00	포르투갈	1.151	+11.10	+21.30
일본	0.022	0.00	-0.80	그리스	2.462	+25.30	+56.50
독일	-0.477	-2.90	-10.00	이탈리아	2.153	+21.70	+37.20